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유화 정진경*
충북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가 현재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람들의 자아존중감 구성요인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자아존중감 구성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보고, 한국인의 자아존중감 구성요인을 탐색하였다. 또한 문화적 편향이 최소화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인의 자아존중감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한 문항과 이론 추출 문항을 수집·작성하고, 문항 분석 결과 선정된 문항들로 새 척도를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전 조사에서는 중고생, 대학생, 일반성인 총252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경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을 묻는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18개 문항을 수집하고, 이론 추출 방법을 통해 5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새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총 23개의 예비 문항을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 SDS 자기평가 우울 척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와 함께 대학생 295명에게 실시하였다. 문항-총점간 상관계수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 척도에 포함할 12개의 문항을 선정하였고, 새 척도는 개인주의적 요인의 문항 6개, 집단주의적 요인의 문항 6개로 구성하여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로 명명하였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들은 개인의 성향에 관계없이 집단주의적 요인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개인주의적 요인에서보다 집단주의적 요인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자아존중감,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 받기를 원하고 그 자신도 자기를 좋게 평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자기를 좋게 평가하기 위한 동기는 주로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나게 되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많은 부분에서

적응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자기를 좋게 평가하기 위한 동기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 자아존중감은 높을수록 개인에게 적응적으로 작용 한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한유화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정진경,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43) 261-2192,
E-mail : chungj@chungbuk.ac.kr

심리학에서 비교문화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자아존중감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의 결과들은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의 자아존중감이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Baumeister, Tice와 Hutton(1989)은 서구에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 연구들을 개관하여,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 상관없이 서구인들의 자아존중감 평균 또는 중앙치가 이론적 중간점¹⁾보다 상위에 편포되어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문화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자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고 Heine, Lehman, Markus와 Kitayama(1999)는 개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의 정적 자기평가 또는 자아존중감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의 자기평가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대조되는 관계존중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국호(2003)는 정적 자기평가를 하기 위한 욕구가 인간의 보편적인 동기임을 고려해 볼 때,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은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서구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측면을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기존 연구의 결과를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한다면 비교문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화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의 목적이려면 비교문화 연구에서 사용될 자아존중감 척도는 집단주의 문화권과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갖는 특성을 모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갖는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1) 어떤 범위에 있어서의 중간위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척도에서 얻을 수 있는 최하 점수와 최고 점수의 범위가 10점에서 50점이라면 이 척도의 이론적 중간점은 30점이 된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William James(1890/2005)가 발전시킨 개념으로 그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잠재력에 대한 실제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향성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하였다.

자기에 대한 좋은 평가는 자기가 내리는 것이든 타인이 내리는 것이든 자아존중감을 고양시킨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 우울, 생활만족, 심리적 안녕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aly와 Burton(1983)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의 인지과정 및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인정에 대한 욕구, 높은 기대수준, 문제 회피 등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Brown(1993)은 자아존중감의 유지가 잠재동기로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이라고 하였으며 Diener와 Diener(1995)는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밝혀내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또한 자아존중감이 적응문제나 우울, 불안 등에 작용하는 중요한 심리·사회적 변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은희, 최태산과 서미정(200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우울을 예측하는 변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조선영, 이누미야, 한성열과 기무라(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5)이 문화차이를 조명하는 틀로써 거론된 것은 오래전부터이지만 크게 주목을 받고 경험적인 연구의 이론적 틀로써 자리를 잡게 된 것은 Hofstede(1980)의 연구 이후이다. 그에 따르면 문화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보편적인 차원이 개인주의 차원과 집단주의 차원이다(Hofstede, 1991/1995). 이러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이 심리학의 이론으로 정립된 데는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와 Lucca(1988)의 공이 크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구분의 기

본적 출발점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을,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집단을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보는데 있다 (Nakano, 1970; Hui & Triandis, 1986).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를 구분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우선시하는 것이 개인인지 집단인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Triandis 등(1988)은 개인/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을 네 가지 하위속성을 들어 비교하고 있다. 개인/집단주의를 규정하는 속성들이 있고 이 속성에 따라서 각 문화나 나라의 특성이 분류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네 가지 속성은 첫째, 자아의 특성이 개별적인 개체(독립적 자아)의 특징을 많이 반영하는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적인(상호의존적 자아) 특징을 많이 반영 하는지이다. 둘째는 개인목표와 집단목표의 충돌 시에 어느 것이 우선적인 고려 사항인지이고 셋째는 대인관계를 교환관계로 보는지 아니면 정(情)의 관계로 보는지이다. 여기서 교환관계와 정(情)의 관계가 가지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환관계는 1 : 1의 교환을 뜻하고 정(情)의 관계는 정확히 1 : 1의 맞교환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더 많이 주거나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사회적 행위의 주 결정인자가 개인의 태도인지 아니면 사회적 규범인지이다. 이 속성들에서 개인주의 사회는 개별적 자아를 강조하고, 개인의 목표를 우선하고, 교환관계를 추구하며, 개인의 태도가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에 집단주의 사회는 관계적 자아를 강조하고, 집단의 목표를 우선하고, 정(情)의 관계를 추구하며, 사회적 규범이 사회적 행위를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에 따라서 두 문화권의 특징을 네 가지 속성들로만 분류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문화권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에서 각 나라가 보이는 중요한 차이들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Triandis(1995)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을 정련화하는 시도로써 수직/수평성을 별개의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문화를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수직/수평 차원이다. 수직/수평 차원을 개인/집단주의에 적용시켜 얻어지는 2×2 분류 틀의 각 조건 안에 속하는 사람들

의 특성을 보면 수직-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비해 수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관심이 크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것으로 여긴다. 수직-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며 서로간의 위계질서가 확고하고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평-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집단의 성원으로보다는 자율적인 개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평-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를 비슷하다고 여기며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한다(Triandis & Gelfand, 1998).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와 자아존중감

개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서양 문화권에서 자아 또는 자기는 긍정적 가치를 지니는 독립적 항상체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자존, 자립, 자기주장, 자아실현 등이 생활의 권장 덕목이며, 개인들 각자는 자율적 주체임이 강조 된다 (Hsu, 1981). 따라서 개인의 활동의 일관성, 독자성을 추구하므로 일관성의 결여, 모순된 행위, 복합적 자아의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보게 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아의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이 인정된다. 이 문화권에서는 개인을 내집단에 종속적인 존재로 파악하므로 개인은 내집단과 결부된 여러 가지 의무를 지니며 개인에 대한 평가는 평가 국면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과 행위의 합치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DeVos, 1973).

Markus와 Kitayama(1991)는 아시아와 서구 문화 사이의 자아가 가지는 기본적인 차이는 독립적 차원과 상호의존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음을 제안했다. 독립적 자아는 외부 맥락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독특한 특성들로 묘사되고 상호의존적 자아는 그 특성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묘사된다. 그들의 관점에 따르면 서구 문화는 독립적 자아를 강조하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아시아 문화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

하고 집단의 요구에 순응하고 의무를 다하며, 조화로운 방법으로 집단에 어울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자아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도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자아존중감의 근거는 각 문화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명제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arkus & Kitayama, 1991; Heine 등 1999). 따라서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독립성과 수월성, 자기표현의 유능성 및 외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자아존중감의 근거가 된다. 이에 비해 개인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억제와 상황적응성 및 대인관계에서의 조화 유지가 자아존중감의 근거가 된다(조궁호, 2003).

최근의 연구들에서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Heine 등(1999)의 연구에서 캐나다 백인의 자아존중감 점수의 분포는 매우 높은 쪽으로 편포되어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분류되는 사람들마저도 이론적 중간 점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이론적 중간 점수를 중심으로 정규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후 분석에서 어떤 수준에서는 일본인들도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기 위해 확실히 동기화 되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긍정적인 자존심(self-regard)에 대한 욕구가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이지만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캐나다 백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도 자신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자존심에 대한 욕구는 문화적으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자기 평가를 하기위해 캐나다인들이 개인주의적 특성을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인들이 중시하는 내용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정적 평가의 욕구가 보편적 동기의 하나임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개인주의 사회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이전의 결과들은 자아존중감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필요하게 한다. 또한 Markus와 Kitayama(1991)는 자아존중이란 일차적으로 서구의 현상으로, 자아존중감의 개념은 자기 만족 또는 문화적 명제의 충족을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Heine 등(1999)은

개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의 정적 자기평가 또는 자아존중감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집단주의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자기평가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아존중감과 대조되는 관계존중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은 인간 보편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화와 자아존중감

대부분의 비교문화심리학자들과 문화비평가들은 한국 사회를 집단주의 사회라고 규정해 왔다. 집단주의 사회의 문화는 내집단의 생활을 개인의 삶보다 우선시하는 문화이고 이 문화의 특징은 관계중심적 인간관을 가지고 대인간 연계성을 강조하며 자기표현에 있어서 자기억제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능력보다 노력을 중시하는 등 행위의 가변성을 인정한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었던 한국사회가 집단주의적인 문화에서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공장 근로자와 관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분배원리를 조사한 연구 결과 남자와 여자, 생산직 근로자와 관리직 종사자 모두가 개인주의 문화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평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환, 1993). 또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수직-수평의 두 축을 적용한 네 가지 유형을 척도화하여 조사한 결과 낮은 연령대의 학력이 높은 응답자들이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였고 모든 계층에서 수평성향자가 수직성향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 가치관은 수직-집단주의자 성향을 가장 강하게 보인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규석, 신수진, 1999).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수직-집단주의로 볼 수 있는 한국사회가 점차 수평-개인주의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 양상으로 볼 때, 한국사회가 가지는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로만 분류하는 것은 한국인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큰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문화에서 자아존중감의 근원은 집단주의 문화의 그것과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에서 자아존중감의 근원은 자기조정과 억제 및 사회 맥락과의 조화 유지가 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한국문화가 점차 수평-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한국문화에서의 자아존중감에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근원이 되는 특성들을 알아보고 그 특성들이 개인주의 차원과 집단주의 차원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후에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5)과 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 개념(Markus & Kitayama, 1991)에 기초한 이론추출 문항들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얻은 자료들에 기초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개인주의 문화의 개인이 가지는 특성과 집단주의 문화의 개인이 가지는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문화적 편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를 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제작한 척도의 각 하위요인들과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주요 이론적 개념들인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제작한 척도가 자아존중감 척도로 사용되기에 타당한지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전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충청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생 89명(35.3%), 대학생 88명(34.9%), 일반성인 75명(29.8%)의 총 252명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은 140명(55.6%)이었고 여성은 112명(44.4%)이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2~66세(평균 : 23.9세, 표준편차 : 10.25)로 다양하였다.

도구 및 절차

어떤 경우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경우에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경우에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의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개방형 질문지를 본 연구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질문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5)과 상호의존적-독립적 자아 개념(Markus & Kitayama, 1991)을 바탕으로 하여 각 이론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지 않은 내용을 문항화 하였다.

결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총 879개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고,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연구자들이 질적 분석하였다. 우선, 유사한 내용의 응답들을 응답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28개의 하위 범주로 범주화 하였다. 28개의 하위 범주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인 자신의 성취, 능력, 개성, 경쟁 등의 내용과 함께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인 노력, 타인에게 도움, 집단에서의 역할,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과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하위 범주들의 빈도와 내용을 검토하여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하위 범주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이 하위 범주와 응답 내용이 유사한 나머지 하위 범주들을 이 하위 범주에 포함시켜 응답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범주로 재범주화 하였다. 재범주화 하는 과정에서 범주명은 빈도가 더 높거나 하위범주의 내용을 포괄하는 범주명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빈도수가 너무 낮은 하위 범주 1개(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 1명)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하위 범주 1개(자신의 단점을 수용하고 고치려고 노력; 7명)는 삭제하고 총 18개의 범주로 재범주화 하였다. 이 18개 범주의 범주명을 문항화 하여 18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표 1). 이론 추출 방법을 통한 문항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지 않은 내용으로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에서 1개, 독립적 자아개념

표 1.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작성한 문항과 하위 범주

번호	문항	하위 범주	빈도(%)
1	내가 목표한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 성취를 얻거나 목표를 달성 스스로 무언가를 해냄	150(17.06) 12(1.37)
2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	88(10.01)
3	나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함	51(5.8) 4(0.46)
4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또는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됨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짐	69(7.85) 4(0.46)
5	나는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낸다	집단속에서 리더쉽을 발휘	17(1.93)
6	내가 속한 집단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함 자신이 속한 집단이 좋은 결과를 얻음	39(4.44) 4(0.46)
7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	30(3.41)
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	16(1.82)
9	나는 경쟁에서 잘 이기는 편이다	경쟁에서 자신이 승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선택	6(0.68) 5(0.57)
10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함	44(5.01)
11	나는 힘든 일도 잘 극복해 낸다	어려운 일을 극복	39(4.44)
12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 보다 나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줌	143(16.27) 11(1.25)
13	나는 친밀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거나 도움이 됨	35(3.98)
14	나의 할 일을 성실히 해낸다	주어진 일을 잘 해냄	33(3.75)
15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 배려	11(1.25)
16	나에게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신이 건강함을 느낌 자신감 있는 자신을 볼 때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	6(0.68) 5(0.57) 2(0.23)
17	나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해낸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냄	34(3.87)
18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잘 옮긴다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옮김	13(1.48)

과 개인주의적 자아개념에서 4개를 작성하였다(표 2).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문항 18개와 이론 추출 따라서 전체 예비 문항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방법을 통해 추출한 문항 5개의 23개 문항이었다. 작성

표 2. 이론 추출 방법을 통해 작성한 문항

이론	자아 개념	문항
상호의존적 자아 개념	나에게는 내가 속한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속한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독립적 자아 개념 · 개인주의적 자아개념	수업시간 동안에 말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을 한다
	나는 많은 면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거나 독특한 것을 즐긴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	
	나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써 중요한 존재이다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나 자신에게 의존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

된 예비 문항 23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1995)에 따라서 개인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문항과 집단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인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문항은 23개 예비 문항 중 12개 문항이었다. 이 12개 문항들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들인 결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 개인의 능력, 독립성, 개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집단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문항은 23개 예비 문항 중 11개 문항이었다. 이 11개 문항들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들인 노력,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집단속에서의 개인의 역할, 주어진 일에 대한 성실성, 타인 배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조사

방법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295명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은 133(45.1%)명, 여성은 162(54.9%)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8~31세(평균 연령 : 20.69세, 표준 편차 : 2.47)였다.

도구 및 절차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Rosne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와 자기평가 우울척도(SDS; Zung, 1965), 개방형 질문지 방법과 이론 추출 방법으로 구성된 23개의 전체 예비 문항을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와 Triandis(1994)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를 리커트식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 이전에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의 원래 문항과 번안한 척도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번안한 척도와 원문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문항이 있어 그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였다. 자기평가 우울척도는 총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2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는 단순한 주관적 감정이 아닌 좋은 삶 혹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측정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46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였다. Triandis(1994)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이 각각 16개씩 포함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5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지 방법과 이론 추출 방법으로 구성된 23개의 전체 예비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하는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23개의 예비 문항은 개인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12개 문항과 집단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결과

문항분석

새 척도에 포함할 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항-총점간 상관계수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표 3과 표 4),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내적 일관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내적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문항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초기 요인분석에서 Eigenvalue가 1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고, 스크리 도표를 확인한 결과 요인이 5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23개의 전체 문항들은 4-5개의 요인으로 묶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반영하는 자아존중감 척도를 제작 하는 것에 있으므로 새 척도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두 가지 차원을 반영하기를 기대하여 요인의 수를 2개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축요인 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를 실시하고 Oblimin회전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에는 주로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들인 개인적 성취, 독립성, 경쟁에서의 승리, 상대적 우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요인 2에는 주로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들인 좋은 대인관계, 타인 배려, 주위로부터의 인정, 집단의 조화유지에 기여하는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

표 3. 개별 문항의 문항-총점간 상관계수

차원	번호	문항	전체 예비 문항의 총점	개인주의 차원의 총점	집단주의 차원의 총점
개인주의 차원	1	내가 목표한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62**	.66**	.49**
	5	나는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낸다	.60**	.61**	.49**
	9	나는 경쟁에서 잘 이기는 편이다	.54**	.59**	.41**
	11	나는 힘든 일도 잘 극복해 낸다	.63**	.66**	.51**
	12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	.64**	.68**	.49**
	16	나에게는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4**	.61**	.57**
	17	나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해낸다	.53**	.57**	.40**
	18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잘 옮긴다	.56**	.64**	.37**
	20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은 한다	.53**	.63**	.33**
	21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써 중요한 존재이다	.49**	.56**	.34**
집단주의 차원	22	나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	.51**	.50**	.45**
	2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	.50**	.53**	.39**
	2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50**	.41**	.54**
	3	나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69**	.59**	.71**
	4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59**	.49**	.62**
	6	내가 속한 집단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59**	.47**	.63**
	7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42**	.26**	.55**
	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0**	.45**	.68**
	10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68**	.56**	.72**
	13	나는 친밀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67**	.58**	.67**
14	나의 할 일을 성실히 해낸다	.59**	.45**	.65**	
15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46**	.31**	.57**	
19	내가 속한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41**	.28**	.51**	

** $p < .01$

다. 따라서 요인 1은 ‘개인주의적 요인’으로, 요인 2는 ‘집단주의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개인주의적 요인’은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중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들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정의 하였고 ‘집단주의적 요인’은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 중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들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정의 하였다. ‘개인주의적 요인’은 전체의 29.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주의적 요인’은 전체의 4.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문항으로 선정된 문항들은 문항-총점간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각 문항이 속하는 차원의 총점과의 상관은 높고, 각 문항이 속하지 않은 차원의 총점과의 상관은 낮음(.50이하) 문항들이었다. 개인주의 차원의 총점은 사전조사에서 각 문항들을 이론적으로 분류했을 때 개인주의 문항으로 분류되었던 12개 문항의 총점이었고, 집

단주의 차원의 총점은 사전조사에서 집단주의 문항으로 분류되었던 11개 문항의 총점이었다. 동시에 요인분석에서는 사전조사 결과에서 개인주의 차원의 문항으로 분류했던 문항일 경우 개인주의 차원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과 같은 요인으로 묶이고, 집단주의 차원의 문항으로 분류했던 문항일 경우 집단주의 차원에 속하는 다른 문항들과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문항-총점간 상관계수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주의 차원의 문항 8개와 집단주의 차원의 문항 7개를 선정하였다. 집단주의 차원의 문항 중 문항이 나타내는 의미가 애매하여 어느 차원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나의 할 일을 성실히 해낸다(14번)’는 내용 타당도가 낮다고 생각되어 최종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하위 척도의 점수 비교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위 척도의 문항 개수가 동일하도록 문항을 선정하는

표 4 전체 예비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pattern matrix)

번호	내 용	Factor loading	
		요인 1	요인 2
18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잘 옮긴다	.721	.148
20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은 한다	.692	.161
1	내가 목표한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38	-.143
11	나는 힘든 일도 잘 극복해 낸다	.506	-.169
2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	.498	.006
12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	.472	-.238
5	나는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낸다	.447	-.185
9	나는 경쟁에서 잘 이기는 편이다	.444	-.130
17	나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해낸다	.440	-.127
22	나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	.397	-.092
2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382	-.127
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048	-.719
10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127	-.650
15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122	-.623
7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087	-.528
16	나는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	-.511
13	나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242	-.510
3	나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309	-.467
4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213	-.436
6	내가 속한 집단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27	-.393
21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써 중요한 존재이다	.175	-.368
14	나의 할 일을 성실히 해낸다	.270	-.359
19	내가 속한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073	-.341
설명 변량(% of Variance)		29.99	4.14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문항의 개수가 더 많은 개인주의 차원의 8개 문항 중 2개 문항을 제외함으로써 각 하위 척도의 문항 개수가 6개로 동일하도록 새 척도를 구성하였다. 개인주의 차원의 문항 중 제외된 2개 문항은 문항-총

점 상관에서 집단주의 차원의 총점과 상관이 .49로 높은 문항들 3개(1번, 5번, 12번) 중 요인분석 결과에서 개인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적 요인 모두에서 높은 적재치를 보인 문항인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12번)’

표 5.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

차 원	내 용
개인주의적 요인	내가 목표한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경쟁에서 잘 이기는 편이다
	나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가끔 해낸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행동으로 잘 옮긴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은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의 일을 스스로 한다
집단주의적 요인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남들을 잘 배려한다
내가 속한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와 ‘나는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낸다(5번)’였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요인의 문항 6개와 집단주의적 요인의 문항 6개로 12개 문항의 새 척도를 구성하였다(표 5).

새 척도의 문항 중 개인주의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목표한 일에서의 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상대적 우월감, 수행력, 자기주장, 독립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집단주의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주위 사람들에로부터의 인정, 집단에서의 책임과 의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중함,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대인관계, 타인 배려, 집단의 조화 유지에 기여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새 척도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새 척도의 명칭은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로 하였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적 일관성 지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 중 개인주의적 요인에 속

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지수는 .73이었고 집단주의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지수는 .71이었다. 개인주의적 요인 6개 문항과 집단주의적 요인 6개 문항을 더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12개 전체 문항의 내적 일관성 지수는 .79였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도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와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는지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지 확인함으로써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을 모두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의 개인주의 성향, 집단주의 성향과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점수와의 상관분석도 실시하였다(표 6).

표 6.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도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요인	집단주의적 요인	Rosenberg 자아존중감	우울	심리적 안녕감	개인주의 성향	집단주의 성향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1							
개인주의적 요인	.88**	1						
집단주의적 요인	.83**	.46**	1					
Rosenberg 자아존중감	.70**	.60**	.60**	1				
우울	-.60**	-.51**	-.51**	-.67**	1			
심리적 안녕감	.71**	.65**	.55**	.74**	-.71**	1		
개인주의 성향	.55**	.57**	.36**	.40**	-.32**	.52**	1	
집단주의 성향	.43**	.31**	.40**	.34**	-.35**	.48**	.37**	1

** $p < .01$

표 7. 각 집단 내에서의 개인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적 요인의 차이

집 단	자아존중감	Mean(SD)	df	t
전 체	개인주의적 요인	16.77(2.44)	291	-11.94***
	집단주의적 요인	18.43(2.08)		
개인주의 집단	개인주의적 요인	17.30(2.73)	90	-4.03***
	집단주의적 요인	18.41(2.49)		
집단주의 집단	개인주의적 요인	16.21(2.49)	93	-9.92***
	집단주의적 요인	18.59(1.93)		

*** $p < .001$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와 Rosenberg 자아존중감 점수는 .70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와 Rosenberg 자아존중감 점수가 정적 상관을 보인 것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우울과 -.60의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심리적 안녕감과 .71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는 낮아지고,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점수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인주의적 요인은 개인주의의 성향과 .57, 집단주의의 성향과 .31의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주의적 요인은 개인주의의 성향과 .36, 집단주의의 성향과 .40의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적 요인과 개인주의의 성향의 관련성이 개인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의 성향의 관련성보다 크고, 집단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의 성향의 관련성이 집단주의적 요인과 개인주의의 성향의 관련성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예상보다 상관계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두 상관계수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33$).

개인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적 요인

전체 조사 대상자와 각 집단(개인주의/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적 요인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집단 구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의 점수를 Z -점수로 환산하여 집단주의의 성향보다 개인주의의 성향이 높은 조사 대상자 중 두 성향의 Z -점수 차이가 큰 상위 33.3%를 개인주의 집단으로, 개인주의의 성향보다 집단주의의 성향이 높은 조사 대상자 중 두 성향의 Z -점수 차이가 큰 상위 33.3%를 집단주의 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개인주의의 집단은 92명, 집단주의의 집단은 94명이었다. t -검증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에서 집단주의적 요인 점수($M = 18.43$, $SD = 2.08$)가 개인주의적 요인 점수($M = 16.77$, $SD = 2.44$)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_{(291)} = -11.94$, $p < .001$). 개인주의 집단에서도 집단주의적 요인 점수($M = 18.41$, $SD = 2.49$)가 개인주의적 요인 점수($M = 17.30$, $SD = 2.73$)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_{(90)} = -4.03$, $p < .001$). 또한 집단주의 집단에서도 집단주의적 요인 점수($M = 18.59$, $SD = 1.93$)가 개인주의적 요인 점수($M = 16.21$, $SD = 2.49$)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_{(93)} = -9.92$, $p < .001$). 이것은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향과 관계없이 집단주의적 요인의 점수가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조사 대상자와 각 집단의 표준 편차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개인주의적 요인의 표준 편차가 집단주의적 요인의 표준편차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집단주의적 요인에서의 개인차가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한국인의 자아존중감

한국인들이 자아존중감을 느끼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성취를 얻거나 목표를 달성 했을 때,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선택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을 때,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 보다 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줄 때 또는 결과와 상관없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 또는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들인 개인의 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상대적 우월감 등의 내용과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들인 노력, 주위 사람들로 부터의 인정, 타인과의 대인관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이 개인주의적 특성과 집단주의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충족시키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사전 조사 결과 수집·작성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한 본 조사의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분류했을 때와는 달리, 사전 조사에서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가정했던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2번)’가 개인주의적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 조사에서 개인주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가정했던 ‘나는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16번)’와 ‘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써 중요한 존재이다(21번)’가 집단주의적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들을 문항화 하는 과정에서 응답자가 실제 자아존중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문장으로 문항화했을 가능성이고, 둘째는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여 같은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에 따라 문항의 내용 해석이 달랐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문항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를 되도록 상세히 검토하고 여러 사람이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하는 과정

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줄이고 좀 더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지에서 얻은 28개 범주를 비슷한 내용을 중심으로 묶어서 18개 문항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빈도수가 높은 문항의 내용으로 문항화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후의 연구에서는 문항을 구성할 때에 빈도수가 낮은 내용일지라도 개별적으로 문항화하여 문항을 좀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정보의 손실을 줄이고, 현상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인의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에서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향과 관계없이 개인주의적 요인보다는 집단주의적 요인의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에서 집단주의적 요인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고, 집단주의적 요인에서는 개인주의적 요인에서 보다 개인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자아존중감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밝혀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및 하위 척도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에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와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의 점수가 높은 정적 상관($r=.70$)을 보였고, 심리적 안녕감과도 높은 정적 상관($r=.71$)을 보였다. 우울과도 높은 부적 상관($r=-.60$)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것은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로 측정한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조사에서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작성한 문항과 이론 추출 문항들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므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들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본 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주요 변인과 기존의 자아존중감이 갖는 관계를 그대로 나타냈다. 따라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 요인들 사이의 상관은 .46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관련성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검사가 가지는 단점으로, 한 개인이 응답한 자료는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자아존중감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개인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적 요인을 모두 측정하여 개인의 전반적 자아존중감 수준을 알기위한 척도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의 개인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적 요인의 점수는 개인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연구 결과 각 하위 요인이 개인의 성향과 갖는 관련성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개인주의적 요인 또는 집단주의적 요인이라고 명명한 자아존중감이 갖는 특성이 개인주의-집단주의를 구성하는 전체 하위 개념들 중 일부이기 때문일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의 자아존중감을 개인주의적 요인 또는 집단주의적 요인의 개념보다 더 세부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인 어떤 일에서의 성취, 경쟁에서의 승리 등을 하나로 묶어 개인주의적 요인이라고 개념화하기 보다는 성취 요인, 경쟁 요인과 같이 세부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성인 좋은 대인관계, 타인 배려, 집단에서의 조화 등의 내용은 관계 요인, 조화 요인과 같이 세부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의 내용은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과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시하는 특성들로 이루어졌으므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한다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구성하고 있는 특성들 중 더 중요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비교문화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다룰 경우에는 내용면에서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자아존중감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자아존중감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자아존중감 척도로 사용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된 한국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밝혀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종한 (1993). 남자와 여자 생산직 및 관리직 종사자의 분배원리 선호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245-253.
- 전병제 (1974).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조근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 틀*. 서울 : 나남출판.
- 조선영, 이누미야, 한성열, 기무라 (2005). 한일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요인의 비교 : 공격자기의식, 자아존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1-12.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Baumeister, R. F.,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 547-579.
- Brown, J. D. (1993). Self-esteem and self-evaluation : Feeling is believing. In J. Suls(Ed.),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self*(Vol.4, 27-58). Hillsdale, NJ : Erlbaum.
- Daly, M. J., & Burton, R. L. (1983).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s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wi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361-366.

- DeVos, G. (1973). *Socialization for achievement : Essays on the cultural psychology of the Japanes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 Sage.
- Hofstede, G.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차재호, 나은영 역). 서울 : 학지사(원전은 1991에 출판).
- Hsu, F. L. K. (1981). *Americans and Chinese : Passage to differences*.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James, W. (2005). 심리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psychology](정양은 옮김). 서울 : 아카넷(원전은 1890에 출판).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Nakano, C. (1970). *Japanese Socie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Triandis, H.,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ca, M. (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Triandis, H.,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e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MacGraw-Hill. New York.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l : Westview Press.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3, 508-515.

Two-factor Self-Esteem Scale :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Factors

Yu Hwa Han Jean Kyung Chung
Chungbuk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construct Koreans' self-esteem on the assumption that it would reflect both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dimensions. The study constructed an inventory for Koreans' self-esteem and verifi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In the pilot study, 252 respondents answered 4 open-ended questions about the situations in which they feel proud of or worthy on themselves. The answers were summarized into 18 categories that including 8 individualistic and 10 collectivistic categories. The preliminary items included these 18 items and 5 theoretical items. In the main study, 295 respon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5 scales(Rosenberg's Self-Esteem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SDS depression scale,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and preliminary items). Based on the results of item-total correlation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6 individualism related items and 6 collectivism related items were selected for the new "2-factor Self-Esteem Scale". The reliability of this scale was .79. It showed high correlations with Rosenberg's Self-Esteem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which supports its usefulness as a self-esteem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of the collectivistic factor is higher than the individualistic factor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ollectivistic factor is smaller than the individualistic factor.

Keywords: Individualism-Collectivism culture; Self-Esteem; 2-factor Self-Esteem Scale

원고접수 : 2007년 10월 15일
심사통과 : 2007년 11월 6일